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68)(9/24/2021)

제 2 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8 장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4-5 절

마 5:44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눅 6:27-28 -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시 34:8 -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 8:26 -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4.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다른 모든 친구들과과는 달리,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특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친구들과 원수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해 달라고, 그들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칭송받거나 사랑받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당신이 차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당신의 마음을 쏟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을 비롯해서 모든 선한 사람 안에 계시게 하십시오.

5. 당신의 내면이 그 어떤 피조물에도 얽매임이 없이 비어 있고 순수한 상태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분이신지를 보고자 한다면, 순수하고 빈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여 당신을 이끄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에서 모든 것을 비워내고 버린 후에, 오직 주님과만 하나되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실제로 당신이 그러한 순수하고 빈 마음이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사람은 궁핍하고 연약해지며, 마치 채찍질을 당하도록 넘겨진 사람처럼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요동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서, 자기에게 무엇이 닥쳐오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참고 감당하여야 합니다. 겨울 다음에는 봄이 오고, 밤 다음에는 낮이 오며, 폭풍 다음에는 큰 고요함이 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해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을 보인 사람 중의 하나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깨끗하고도 진실한 사랑을 노래하였다. 시 18:1 -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44:2 -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일 4:10 -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다. 요일 4:8 -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밖에 없다. 요일 4:7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일 4:21 -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대상의 범위를 사랑할 수 없는 대상으로까지 넓히셨다. 눅 6:35 -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주님만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으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다. 요일 2:15 -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울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 고전 10:31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뱀전 4:11 -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 자신이 가로채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늘 비워지고, 낮아지며, 정결해야 한다. 신 30:6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겔 36:26 -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엡 4:23-24 -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빌 2:5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는 은혜를 주시고, 청결한 마음은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부여 주신다. 마 5:3, 8 -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결국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탈레반의 통치 속에 고통 당하는 아프가니스탄의 백성들과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온전히 변화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3.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들의 가정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